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 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7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화제의 인물, 뿌리를 찾는 젊은이 이양재씨

1983년 7월 13일 당시 KBS 제2TV의 심야방송 프로그램이었던 ‘11시에 만납시다’ 에는 옛된 모습의 한 청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그가 초대되어 들고 나온 물건이 조금 색달랐다. 그가 앉은 옆에는 화면에서 보기에다 누렇게 바랜 한지로 묶인 책들이 의자의 키만큼이나 쌓여 있었던 것. 책갈피는 낡고도 낡아 어떤 것은 종이가 건드리기만 하면 찢어질 것 같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금속활자의 고서 수집가’ 인 이양재씨.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그리고 그가 방송에 출연한지 3일 후에 인협신보는 그를 직접 만났다.

이씨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는 신보 기자의 물음에 대뜸 “계보가 없는 나라는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알 때 하나의 세계가 형성된다”는 것. 그는 처음엔 인물사를 주로 연구하던 학자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떤 인물을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족보에 손을 대게 되었고 이는 다시 고활자로까지 연구 범위가 넓어졌다. 그가 수집했던 고서와 연구 범위는 대략 1400년대부터 1800년대말의 납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양재씨는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는 고려 고종19년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설이 있다”며 “고종 때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들이 동서로 진출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많았다”고 말했다. 결국 독일의 구텐베르크 역시 한국 활자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

신보는 이씨가 고서 수집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취미 역시 고서 수집으로 30여 군데의 단골책방을 두고 있었는데 돈을 조금 아끼려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까운 책이 폐지로 넘어간 일도 있었고, 한편의

책이 필요해서 한질의 책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고.

이런 그에 대해 신보는 우리조상의 숨결과 자랑스런 체취를 더듬어가는 이씨가 28살의 나이 답지 않게 우람해 보이는 것은 단지 입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옛 문화에 대한 열정을 높게 평가했다.

●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984년 7월 27일자 인협신보는 시론을 통해 인쇄업계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단체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신보는 업계에 개점휴업 상태의 인쇄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주문이 없으면 꿈쩍 못하는 것이 인쇄업의 생태인만큼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된 가동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무리하게 시설확장을 했거나 방만한 경영, 무모한 덤핑행위 때문에 부도사태가 발생했거나 어려움을 겪는 인쇄회사들이 속출하는 것도 우려해야할 대상으로 꼽았다.

신보는 특히 덤핑수주의 파고는 전업계를 한 바퀴 돌고 결국은 당사자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한 번 무너진 질서와 실추된 신용을 바로 세우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업계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신보는 인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서는 문제해결 역시 그만큼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인쇄업계의 문제해결은 인쇄인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세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쇄단체를 중심으로 한 굳은 단결을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쇄인 개개인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오토콘은 국내에서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동아일보에서 신문용 흑백사진 처리작업에 가장 처음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레이저광원에 의한 높은 해상력 갖춘 '오토콘'

1985년 7월 5일자 인협신보에는 종래의 제판카메라에 비해 사용이 간편하고 성능이 우수한 레이저그래픽시스템 '오토콘1000'이 소개됐다.

이 제품은 미국 ECRM사에서 개발된 것으로 코사리베르만사에 의해 국내에 선을 보였다. 당시 코사리베르만사의 설명에 따르면 오토콘은 기존 제판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인력방식의 컴퓨터시스템으로 작동법이 용이하고 일반복사기와 크기가 동일해 좁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또한 레이저광원에 의한 높은 해상력으로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암실작업이 아닌 명실작업이 가능하고, 다량의 인쇄물을 신속하고 정확, 선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일명 흑백스캐너라 불리는 이 기계는 용도에 따라 인화지와 필름을 겸용으로 사용함은 물론 특수스크린 효과가 버튼 하나에 의해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어 생산성이 우수하다고 소개됐다.

이 기계는 또한 시간적인 면에서 16절 크기의 원고를 약 3분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다량의 페이지작업을 요하는 업체로서는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도 갖추고 있었다. 기능면에서는 컬러토털 스캐너와 동일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기종에 있어 토털흑백 스캐너라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 오토콘은 이밖에도 9가지의 기억장치능력을 적재하고 있어 고객의 작업방법을 기억시켜 놓고 언제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신보는 설명했다.

● 동아인쇄공업주, 어려운 이웃 돕기에 앞장

1983년 7월 8일자 인협신보에는 불우한 아동들을 도우며 지역 사회에 이바지 하는 한 중견 인쇄사가 소개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동아인쇄공업주.

이 회사는 1982년 7월 20일 에스더 직업보도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매월 임직원들이 방문, 학생들에게 참고서 및 노트 등을 전달하며 배움을 터득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그들의 생활의욕을 북돋워 주는데 힘썼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에스더 직업보도소에는 5세~15세의 여자고아 5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8명의 교사와 보모가 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동아인쇄공업 임직원들은 아무리 바빠도 한달에 한 번 이상은 이곳을 찾아 자사에서 직접 간행한 각종 참고서 및 아동전집류, 노트 등을 제공했으며 아이들의 신체단련을 위해 배구공 및 배드민턴 라켓을 준비해주기도 했다. 또한 명절 때는 떡과 과일을 마련하여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특히 김상문 동아인쇄공업 사장은 사내에 불우이웃함을 설치하고 파지 및 폐자재의 매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문 사장은 당시 기사에서 "앞으로도 에스더 직업보도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며, 내년(1984년)에는 양로원과도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조그만 성의로 불우한 이웃에게 훈훈한 삶을 느끼게 해주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치원 기자 kow@print.or.kr